



1992  
성도의 삶 4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벗 4 1992



## — 표지 설명 —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지난 6월 유럽 중부 및 러시아 지역을 돌며 역사적인 순회 공연을 하던 중 솔로 마릴린 노리스와 함께 이곳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그 모습을 선보였다. “영혼으로 보른 노래” 참조 표지 사진 : 크레이그 디몬드

## — 어린이란 표지 —

세리 마이델 삽화

## 일 반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	1
대관장단 메시지 : 인생은 영원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2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역 켄트 피 잭슨 .....	6
그리스도를 믿음 스티븐 이 로빈슨 .....	14
신앙의 험난한 여행 로렌스 에이치 카임 .....	25
“영혼으로 부른 노래” 제이 엠 토드 .....	32
“주님께서 이 여행을 원하십니다” .....	42
여행 지역별로 본 교회의 성장 .....	44
주요 여행 일지 .....	45

## 청 소 년 란

전파를 정복함 앤 시 브래샤 .....	10
질의응답 : 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	28

## 정 기 특 별 기 사

방문 교육 메시지—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함 .....	24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샬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	65
교회 및 지역 소식 .....	66

## 어 린 이 란

가장 친한 친구 헬렌 휴즈 빅 .....	50
함께 나누는 시간 : 저는 경전을 읽을 때 경건을 느낍니다. 버지니아 펄스 .....	54
1992년 4월 부활절 달력 : 속죄와 부활 콜리스 클레이튼 .....	56
노래 : 아들을 보내셨네 .....	58
심심풀이 : 점선 따라 잇기 쥬드 .....	60
몰몬경 이야기 : 엘마 이세가 회개함 델 .....	61

1992년 4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킵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존 알 래스터,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13권, 제29권, 제4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84 320

Printed in Korea 4/92

#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부**활 절기가 다가오는 이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 : 6)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번째 부활절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던 때로부터 거의 이천 년이 지났으나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며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진리를 찾기 위해 구세주의 생애에 대해 공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같이 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 인생은 영원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인**생은 영원하며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지를 지닌 영으로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의 일부인 이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시작은 아니었으며, 우리 모두가 겪는 사망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곳을 두루 여행해 본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선한 이웃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의 표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치한 종으로서 저는 이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저는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 조그만 농장, 상점,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이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문제로 가득찬 이 죄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여행하노라 하면 세상의 무상함과 덧없는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 인해 겸허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확신에서 우리나라 오는 감사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위대한 복음 계획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및 희생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푸시고,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으며, 또한 모범을 보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1:25~26)고 선포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성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위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지상에서 삶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없고 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지나친 애착과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재물은 우리가 여기 세상이라는 학교에 있는 동안 교실이나 칠판과 같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가죽, 토지, 가축 등등의 세상 재물을 적재 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첫 번째 가르침, 즉 주님의 복음 계획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임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없으며, 영원한 이별도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습니다. 경전은 이 부활에 대한 증거로 가득차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직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태복음 27:52~53)

영의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과 저 세상간의 장막이 아주 얇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 브리감 영은 “영의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신 후 직접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들이 조직된 이 지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지구에 영원히 거해야 할 목적으로 여기에 보내진 것입니다.”(설교집, 3:368)

“영이 육신을 떠나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도록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난 영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설교집, 3:368)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무덤가에서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역사상 그 어떤 것도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놀라운 선언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와 신앙도 없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혼란과 암흑의 굴레와 공포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자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빛과 완전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동정이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 그분의 사랑과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신성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사슬을 푸신 주님의 영화로운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무지와 의심의 사슬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미로운 영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간단하고도 영화로운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모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때 우리의 축복은 커집니다.

오늘날 수만 명의 충실한 선교사들이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자유롭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의리의 증보자이십니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수백만 명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하늘에서 계시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며,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전하는 진리가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2.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사슬을 푸셨으며, 우리가 생활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3. 우리는 종종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즉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4.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무지와 의심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5. 죽음, 곧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승천, 해리 앤더슨 그림



# 그리스도의 영원

##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계시자요, 구속주이다

켄트 피 잭슨

**물** 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과 기록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계획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축복해 준다. 성경에 덧붙어진 이러한 말일의 경전들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분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던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을 거부하고, 현대의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단지 갈릴리에 살던 평범한 유대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분은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하에 영광스럽게 통치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전세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분이 “하나님 같으”시다고(아브라함서 3:24) 간증하였다. 바울은 전세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빌립보서 2:6)하다고 기록하였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5)라고 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히브리서 1:3)이다. 수없는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며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죄를 대속한 신성한 행위는 베냐민 왕이 “과거나 현재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전능하신 주님”(모사이야서 3:5)으로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와의 성역의 일부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에게 그분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의 영원한 성역에 관해 광범위하게 알아야 한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계시자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창조주 .....

고대와 현대의 경전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한다.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분은 “주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

“말하매 세상이 만들어졌고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루어지게 한 자니라”(교성 38:1, 3)고 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로새서 1:16)다고 기록하였다.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를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모사이야서 3:8)라고 일컬었다.

모세는 시현으로 주님의 사업을 보았을 때 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하여 분명한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또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모세서 1:32~33)

여호와와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창조를 주관하였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브리서 1:3) 그분으로부터 나아오는 빛은 “광활한 우주”를 채우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교성 88:12~13)

옛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바로 이 여호와께서 우리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밝혀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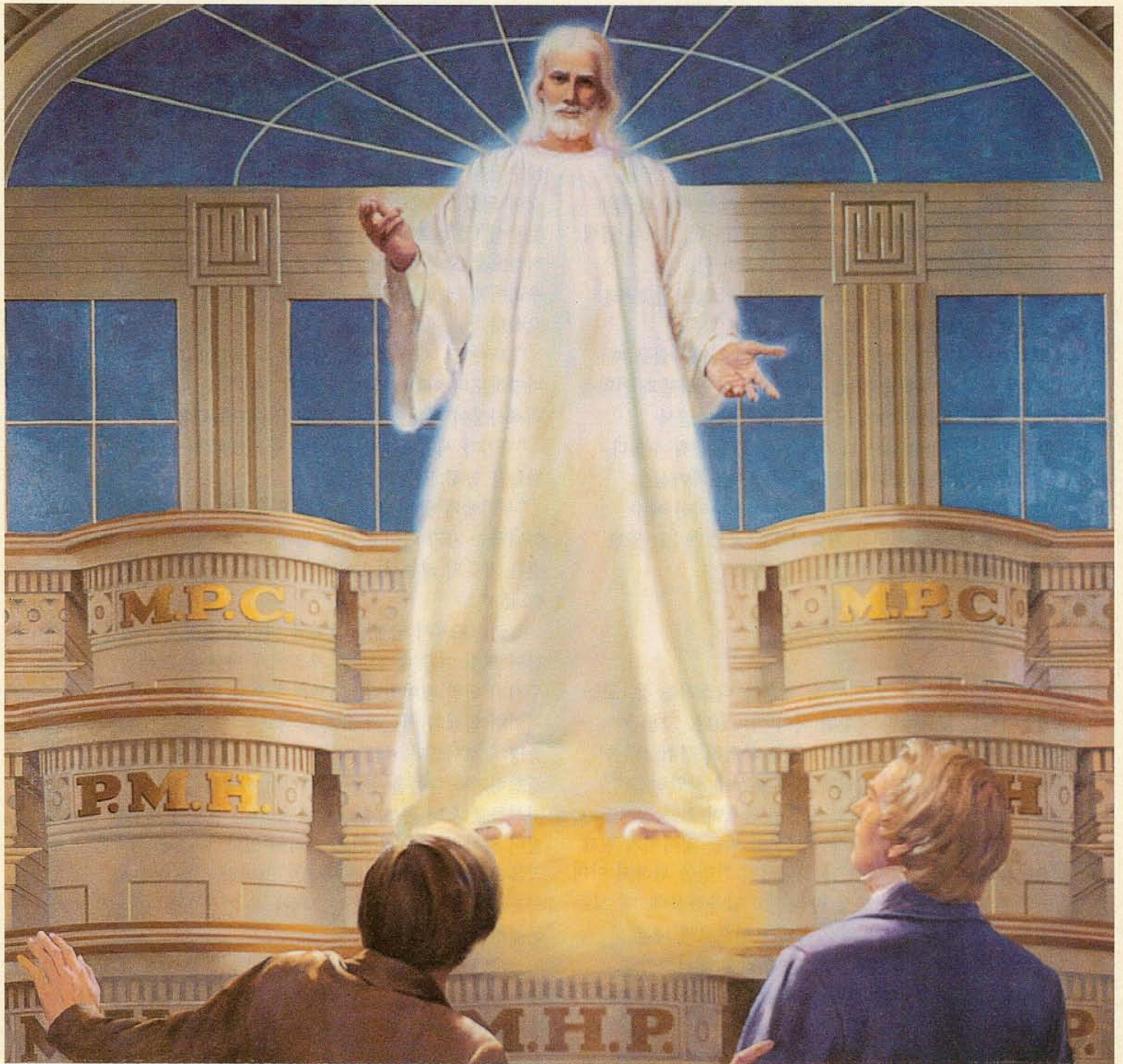
# 한 성역

이것이 바로 성역의 모습이다. 이 성역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1988년

이 성역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 성역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 성역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 성역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1988년 3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1988년 3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사진은 '1988년 3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예언자들과 말씀해오셨던 고대와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타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경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가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그리고 모든 예언자와 말씀하신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콩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4~56년 1권 26쪽)

물론경 역시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신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율법을 내려준 자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니파이삼서 15 : 5; 또한 니파이일서 19 : 7~10; 니파이삼서 11 : 14 참조)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밝히셨다. “너희 구속주요 위대한 자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교성 29 : 1; 또한 38 : 1; 39 : 1, 출애굽기 3 : 13~14 참조)

### 구속주

예수님의 성역은 창조 사업,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는 예언자와의 교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분이었으므로 그분의 성역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받으며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성 19 : 16)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이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자비의 표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졌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사 필멸의 상태를 받아들이

필멸의 상태로 지상에 오시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분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마굿간에서 가난한 가족에게로 태어나는 가장 비천한 상태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신성한 신분과 그분이 보내어진 사명을 숨겨주었다. 그것은 그렇게 비천한 환경하에서만 그의 사업이 행해질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보다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성 88 : 5~6 참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겸손한 특성을 알고 이해하였다. 예수님은 “오�히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빌립보서 2 : 7~8)었다. 진실로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실 때 자신의 영광을 내려 놓으셨다. 그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필멸의 상태로 오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2 : 17~18; 4 : 15)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따를 본을 세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인생의 시련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필멸의 존재로서 시련과 유혹을 경험하거나 슬픔을 겪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그분이 계심을 아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그분은 역경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상태로 오신 것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뜻하였다. 그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고통,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포함하였다. 그분은 “인간이 회개하면



## 만왕의 왕

모든 자 중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취하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처소로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다. 필멸의 상태에서 희생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 : 29 참조)이라고 불리웠던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한계시록 19 : 16)이시다. 그분은 다시 영광을 취하시게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여호와이시다.

희생과 봉사의 가장 위대한 행위였던 예수님의 속죄는 그분의 가장 큰 승리가기도 했다. 그분은 이 지고한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심으로써 위대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에게 위대한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헛된 착각과 사회적 지위 및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하찮은 것임을 보여 준다. 가치에 대한 모든 정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세상의 저울이 참된 가치를 측정해 내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종종 참된 가치를 왜곡시킨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내세에서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대함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웠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 : 25~28)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처소에 거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그분의 사업을 그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원한 사명도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영생”(모세서 1 : 39)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상 그렇듯이 그분의 자비이다.

아마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누가복음 15 : 1~7)는 우리에게 그분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거룩한 목자로부터 더 많은 보살핌과 격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쉽사리 그분을 따르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치르신 고통은 우리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기에 그렇게 많은 대가가 아니라고 그분이 생각하셨음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그분의 사업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각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이 행해지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고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참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여 응답하는 자들은 결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한복음 14 : 2)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이 참됨을 알게 될 것이다. \*



# 전파를 정복함

앤 시 브렛사

“안녕하세요. 제니가 진행하는 헬튼 방송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음악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헬튼 종합 병원 환자들은 매주 몇 시간씩 디스크 자키로 일하는 17살 난 제니 아일랜드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이런 명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제니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병원의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 환자들은 대부분 제니가 팔도 없이 그 복잡한 방송 장치를 조작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제니가 태어났을 때 제니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만 달린 것을 보고서 “오, 이 사랑스러운 딸에게서 어떻게 포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제니는 몸 전체로 포옹하죠. 그 애는 더 이상 사랑스러울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런 아이였어요.”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제니의 인생 전체에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제니는 그것을 인정한다. “전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의 가장 큰 포부는 제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하는 것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니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제니에게 너무 큰 장애란 없다. 제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국가에서 신체 단련상을 받을 수 있는 필수 과정도 이수했다. 웨일즈, 스노우도니아에서의 마지막 하이킹은 그녀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온갖 종류의 날씨 속에서 며칠간을 단지 나침반과 지도만 갖고 산을 넘어 여행하였다. 제니는 또한 한쪽 무릎의 인대도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는 확고한 결심으로 그 여행을 계속하였다.

제니의 불임성있는 성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녀의 강한 간증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제니는 자신의 간증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또한 제니는 사람들이 특별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법을 잘 안다. 그녀의 장애 때문에 난처해하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때때로 아이들이 제 등 뒤에서 저를 가리키며 수근거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죠. 그런 것은 제게 정말 조금도 괴롭지 않아요. 전 그냥 웃어요. 팔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자신을 믿는다면 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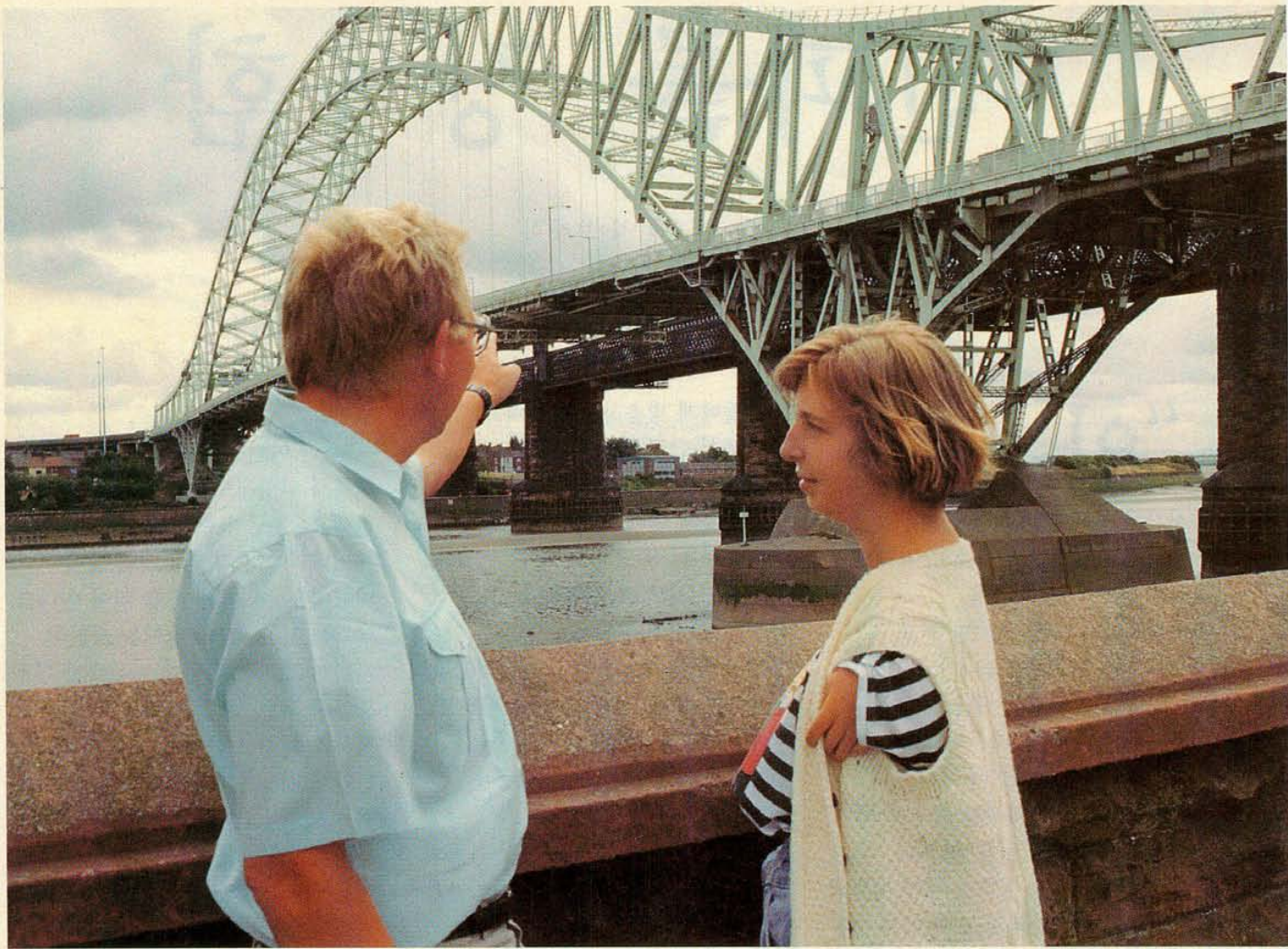
“제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대요. 누구의 탓도 아니예요. 전 세미나리에서 자신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저의 장애는 시련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죠. 그것은 저를 더욱 강하게 해주고 끈기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서로 가깝게 되도록 해 줘요.”

제니에게는 15살 난 남동생 야렛과 여동생인 13살 난 맥신 그리고 9살 난 커스티가 있다.

제니는 “제가 피하고 싶은 유일한 집안 일은 설거지예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것처럼 푹 젖게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야렛처럼 요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제니는 이전에 비디오로 찍힌 자신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했다.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저 소녀에겐 도움이 필요하겠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였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요. 전 제가 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날도 있어요.”라고 제니는 인정한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은 제가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이며 제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오셨어요.

“전 초등학교에서 모두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선생님이 받아쓰도록 쓸 것을 불러 주셨지만 전 충분히 빠르게 받아쓸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아라.’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도와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 전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쓰기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양말을

신을 수 있을 만큼 손이 닿지 않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라고 제니는 회상한다.

학교는 제니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교회 프로그램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아무 것도 그녀의 진보를 막을 수 없도록 그녀의 자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 학생들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얘기해야 했던 학교 토론회를 기억해요.”라고 제니는 웃으면서 말한다. “전 교회를 선택했어요. 제가 ‘교회는 재미있다’고 말하자 모두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워했어요. 질문 시간에 누군가가 ‘넌 정말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니?’라고 물었죠. 마침내 선생님은 ‘그건 너희 교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선전이었어.’라고 평하셨어요.”

제니는 계속하여 말한다. “또 다른 경우인 신체 단련상을 받기 위한 기간에 도보를 실시했는데 우리는 등에 짐을 저 날라야 했어요. 저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거의 중단할 뻔 했죠. 저는 대개 그렇게 큰 시험에 앞서서 아빠에게 축복을 구했는데 이때는 잊어버렸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에게 와달라고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고 있을 때 제 축복문에 있던 한 귀걸이 머리속에 떠올랐어요. ‘그대가 하고자 결심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느니라.'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 그것을 해냈어요.”  
 “지금 행하십시오.”라고 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제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제니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마다 성취해냈다. 그녀는 하이킹, 수영, 롤러 스케이트, 춤, 캠핑 및 그림에 재능이 있다. 또한 제니는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운전을 배우며 미국을 여행할 돈도 모으고 성전에서 결혼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 즉 라디오 전파를 정복하려는 그녀의 목표이다.  
 제니는 병원의 디스크 자키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동안 음악 및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제니와 그녀의 감독이기도 한 아버지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형 현수교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큰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라디오 방송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제니가 가족과 함께 아래 오른쪽에 있다. 아버지 아더와 어머니 이레느, 남동생 야렛, 여동생 맥신과 커스티.

그것을 다루려는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녀는 클래식에서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음악을 다 사랑하며 차분하고도 재미있게 방송을 시작한다.

제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헬튼 라디오 방송국장인 데릭 오웬즈도 동의한다. “제니는 원래 조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디스크 자키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니가 망설이지도 않고 그 시간을 대신하여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진행했죠. 이제 제니는 매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국장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니가 말일성도로서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때때로 제니에게는 표준을 낮추게 할 유혹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가 될 때도 있는데 특히 그녀의 중요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더욱 그렇다.

제니가 큰 라디오 방송국의 유명한 디스크 자키를 만날 수 있도록

일요일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런 경우이다.

제니는 병원 동료들을 격려하며 유력 인사들과 만나고 제니의 경력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될 그 초대에 무척 응하고 싶었다. 동료들은 계속 제니에게 그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제니는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였다.

제니는 “그들을 실망시켜서 정말 난처했어요. 그러나 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병원 동료들까지 실망시키게 되면 더욱 괴로웠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병원 동료들은 저의 나쁜 모범을 보게 되었을 테니까요.”라고 말한다.

제니는 나쁜 모범이 의사 소통의 경로를 차단해 버릴 수 있음을 안다. 제니는 그런 경로를 만드는 데 더욱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것은 그녀가 다음 메시지를 명랑하게 방송할 때 명백하게 나타난다.

“끝날 시간이 돼 가는군요. 마치기 전에 두 시간 동안 저와 대담해 오신 여성과 잠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론 교회로 알려지기도 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그 교회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음

## 속죄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스티븐 이 로빈슨

**전**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진퇴양난의 위기는 두 가지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 첫번째 사실에 대해 교리와 성약 1편 31절에서 읽을 수 있다.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 말은 그분이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못본 척해 주시거나 다른 식으로 봐 주신다거나 그것을 숨겨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털끝만큼의 죄도 관대히 봐 주실 수 없다.

그 딜레마의 다른 사실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표현된다. 누구나 죄를 짓게 마련이다.

서로 평행을 이루는 그 두가지 사실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면전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러한 양립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계획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큰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우리 가족에게서 일어난 몇가지 경험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우리 아들인 마이클에 대한 얘기다. 그가 예닐곱 살쯤일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외아들이었다. 나는 그가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소년이었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랐으므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를 그의 침실로 보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의 방문이 열리고 머뭇머뭇하며 거실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돼!”라고 하면서 거실로 달려 나갔는데 그곳에서 울어서 부은 눈에서 계속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빠, 우린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 없나요?”라고 말했다. 물론 나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무엇을 했든 간에 나는 그를 사랑했다.

마이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그분의 영광 면전에서 떨어져 나온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방으로 보내지는”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상처입히는 죄가 있다. 때로 우리는 다시는 깨끗해질 수 없이 느껴지게 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눈을 들어서 “오, 아버지시여, 우린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 없습니까?”라고 주님께 묻기도 한다.

모든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답은 명확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특히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것이 표현된 방식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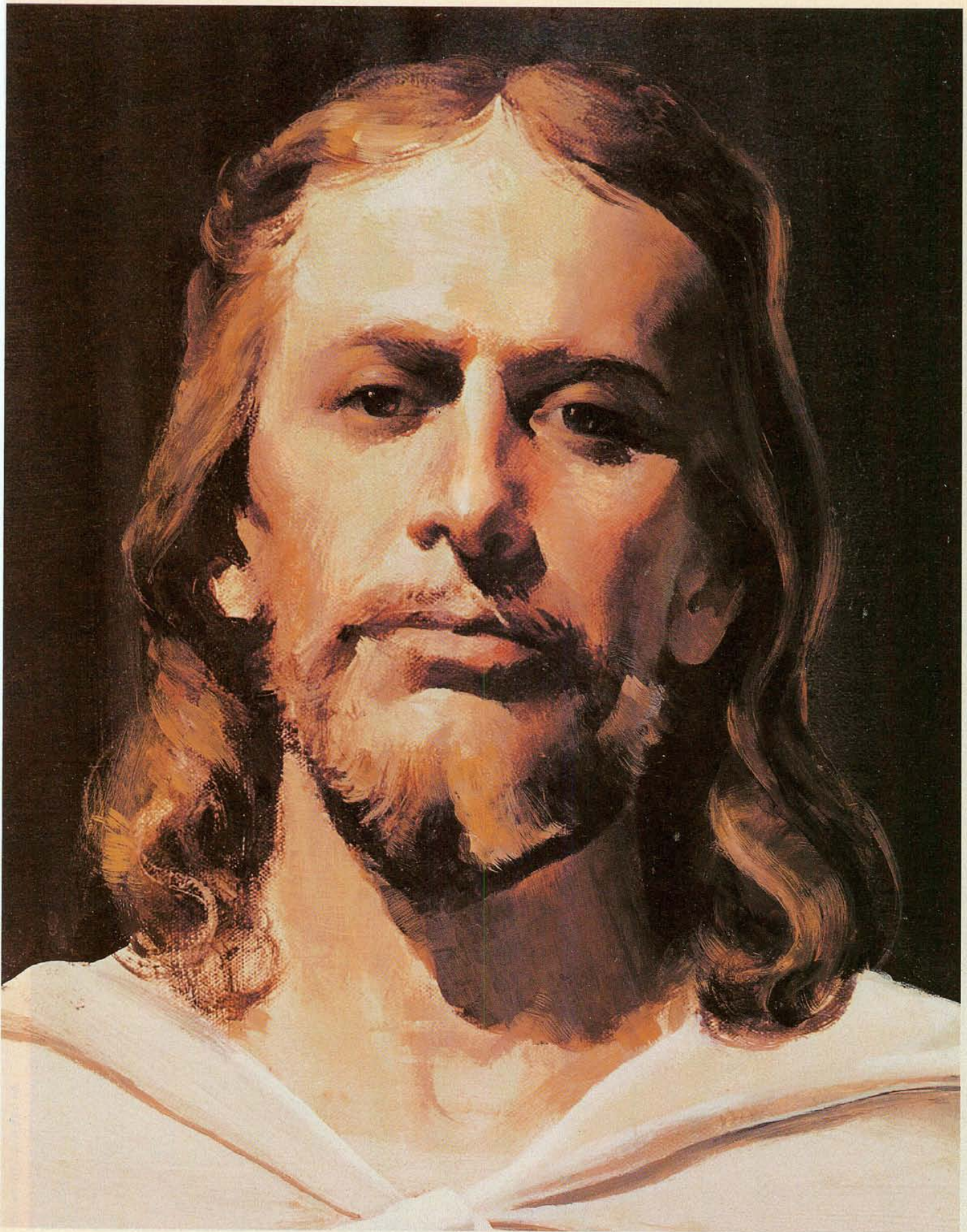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간에 문제가 아니며 그분은 여러분을 순결하고 합당하며 깨끗하게 하늘에 거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존재와 신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를 깨끗케 해 주시고 해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숙자, 해리 연다는, 피서며 불교사 제공

또한 그리스도의 존재만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수도 있다.

교회의 감독과 교사로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분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신분은 믿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며 결백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는 믿지 않는다. 그분의 신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쪽 요소이다. 깨끗케 하며 구원하는 그의 권세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나머지 반쪽 원리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깨끗케 하며 하늘에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

내가 감독이었을 때 어떤 회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독님, 저는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이런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전 교회에 나오면 소정의 좋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충만한 축복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회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독님, 전 그저 보통 성도예요. 전 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모 형제(또는 자매)가 가진 그런 재능도 없어요. 전 결코 감독단으로 부름받을 수 없을 거예요. 또는 전 결코 상호부조회 회장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전 평범할 뿐이죠. 승영보다는 좀 낮은 처소에 가기를 바래요.”

이러한 말은 “난 그리스도께서 그가 주장하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 내겐 그분이 나를 승영하게 해주실 능력을 믿는 신앙이 없어.”라는 개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사진 스티브 벨타돈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나의 아들이 내게 “아버지,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 없나요?”라고 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수 있다. 그 대답은 “다시 될 수 있다.”라고 메아리쳐온다.

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거예요.”라고 응수하였다.

### .....그분이 구세주로 불리는 이유.....

때때로 우리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부담감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가장 놀라운 복음 진리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약 십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내인 자넷트와 나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는 승진하였으며 우리 가족에겐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자넷트에겐 개인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였다. 그 해에 그녀는 네번째 아이를 가졌으며 대학을 졸업하였고 공인 회계사 시험을 쳤으며 와드

어떤 사람은 내게 “감독님, 전 정말 해의 왕국에 갈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되물었다. “왜 형제님의 진짜 문제를 인정하지 않죠? 형제님이 해의 왕국에 갈 가능성이 없다고요? 우리들과 똑같은요. 우리 중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신앙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는 화를 내었다. 그는 “전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전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네,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나 형제님은 협력할 경우, 비록 해의 왕국에 갈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성전 추천서도 갖고 있었고 가정의 밤도 계속해 왔었다. 나는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단지 “영적으로 죽게 됨”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났다. 아내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게 말했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것이 가장 최악의 부분이었다. 두 주 동안 아내는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부름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두 주 쯤 지나서 아내는 말하였다. “좋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죠? 말해 줄게요.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난 아침마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바느질하고 애들이 숙제하는 것을 도와 주고 내 숙제도 하고 상호부조회 일을 하고 가족 역사 기록을 하고 학교 사친회도 가고 선교사에게 편지쓰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부과된 짐들을 하나씩 나열하였다.

그런 다음 아내는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열거하였다. 아내는 “난 모델 자매님과 같은 재능도 없어요. 차일즈 자매님이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구요. 애들에게 소리지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참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리치죠. 난 결국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완전하게 될 수도 없음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난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할 거예요. 합당한 것처럼 꾸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죠?”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내에게 “자넷트,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물었다.

아내는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할 수가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전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네. 그러나 형제님은 협력할 경우, 해의 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거예요.”라고 응수하였다.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지켜 왔어요?”

아내는 “난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모든 계명은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아내가 지닌 문제가 내가 추측해 보았던 끔찍한 것들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다. 교회의 참됨에 관한 간증을 갖고 있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활동적인 회원들도 복음의 핵심인 “좋은 소식”을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넷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아내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했다. 아내는 왜 예수님이 조연자이며 교사인지를 알고 있었다. 또 왜 예수님이 모범이 되며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만형이며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왜 구세주로 불리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내는 예수님을 조연자로 두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더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인 야렛의 동생에 관해 읽을 수 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위대해서 장막을 꿰뚫고 그리스도의 영체를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이 당신께 보인 부족함으로 하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당신께서 거룩하사 하늘에 거하시며 우리는 당신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아나이다. 우리의 시조가 타락한지라 죄가 계속되었으나,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당신께 간구하라 하시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하였은즉”

물론 우리는 해의 왕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도록 간구하라고 명함받은 이유인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6)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성구를 자주 오해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인들이 축복받을 것이요”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언제 배가 고프는가? 언제 목이 마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와 해의 왕국의 의를 좇는 데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즉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받는다.

### ..... 하나가 됨

필멸의 상태로써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온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분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업에 비유하면 이것은 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막 도산하기 직전의 작은 회사가 탄탄한 회사와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한데로 모여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지불능력을 갖게 된다.

자넷트와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었던 반면에 자넷트는 은행에 돈이 있었다. 우리가 결혼 성약을 맺었을 때 은행 계좌를 합친 형태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나”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었다. 재정적인 상태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였다. 나의 부채와 그녀의 재산이 서로서로 이 공동 공좌로 합쳐졌으며 처음으로 몇 달 동안 나는 부채를 청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세주와 성약 관계로 들어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에게 부채가 있고 그분에게는 재산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약을 맺자고 청혼하셨다. 그것은 청혼을 통해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인 결혼이므로 나는 의도적으로 청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신랑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이 성약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서 경전에서는 그것이 결혼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우리는 협력자로서 함께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한다. 나의 부채와

그의 재산이 서로 합쳐지게 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는 내가 여전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 우리 둘이 합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내세에서 어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기 전에 이생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개념, 즉 완전성에 대한 요구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는가? 율법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는가?

구세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9~30)고 하셨다.

### ..... “나를 의지하라.”

예언자 니파이는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구세주가 필요하며 그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이는 나를 험사리 뒤엎어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

“내가 기뻐하고자 할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니파이서 4:7~19)

니파이는 자신의 필멸의 상태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렇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대답이다. “내가 이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19절)

니파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죄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여전히 해의 왕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 니파이는 자신의 죄에서 깨끗케 해주며 그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였다.

내게는 “내 인생이 반쯤 지나갔고 해의 왕국에도 반쯤 간 것 같으니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라고

자주 말하는 친구가 있다.

어느 날 나는 그 자매에게 “주디, 만일 자매님이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녀는 “글쎄요, 해의 왕국에 가기엔 충분치 않으니까... 달의 왕국 중간쯤 되겠죠? 썩 좋은 곳은 아니겠죠.”라고 말했다.

우리는 구세주와 함께 성약을 맺은 상태에서 내일 죽는다 해도 해의 왕국으로 갈 희망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희망은 성약 관계에서 약속된 축복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의 유익함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 쌍둥이 딸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쌍둥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였다. 베키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딸과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베키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베키는 “아빠가 날 물에 빠뜨려 죽이시려나봐. 난 이제 죽었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물은 깊이가 일 미터쯤 밖에 안되었지만 베키의 키는 겨우 90센티미터쯤에 불과하였다. 딸은 너무 겁에 질려서 소리지르고 울면서 발로 차고 할퀴기 시작하였다. 나는 딸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을 감싸 안고 “베키, 난 널 잡고 있어. 난 네 아빠야. 널 사랑해. 네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거야. 이제 마음을 놓아.”라고 말해 주었다. 놀라게도 딸은 나를 믿어 주었다. 딸의 마음이 풀어진 다음 나는 그 아이 밑으로 팔을 두고서 “좋아. 이제 발을 차 봐.”라고 하였다. 베키는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해의 왕국에 합당한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선행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영적으로 베키와 유사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사는지 죽는지에 대해 너무 겁을 먹고 있으므로 즉, 해의 왕국에 가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난 널 잡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널 죽게 하지 않을거야. 이제 마음을 놓고 나를 믿으렴.”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그를 의지하며 그분이 말한 것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우리는 함께 복음대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 그때 그분은 “좋아, 이제 십일조를 바쳐 보렴. 훌륭해. 이제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 보렴.”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하기 시작한다.

엘마서 34장 14~16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보라 모든 율법의 의미는 이러하니, 작은 말씀들이 모두 날날이 마지막이 될 큰 희생을 의미함이라.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최대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시리라.

“이렇게 하여 아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리니, 이 마지막 희생은 곧 공의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능히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려는데 뜻이 있느니라.

“자비로 인하여 공의의 요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들이 안전히 보호될지나”

안전히—그것은 내가 물문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이다.

말일성도들은 “구원받게 됨”을 믿는가? 만일 내가 나의 종교반 학생들에게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는가?”라고 뚜렷한 소리로 묻는다면 보통으로 삼분지 일쯤이 고개를 저으며 “오,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죠.”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얼마나 비극인가! 우리는 가장 확실히 구원받게 됨을 믿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불리는 이유인 것이다. 만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구세주가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의자에 앉아서 “아이구. 또 한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군. 이봐요. 배영으로 해 보세요. 맙소사, 엉망이군. 살지 못하겠는데.”라고 말만 해주는 수영장 안전 요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 및 우리 내부에 있는 세속적인 자아로부터 구해 주실 구세주가 있다.

요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의 시현을 보고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말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심판하시는 하늘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자니라.

“이들은 새 언약의 증보자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니,”(교성 76 : 68~69)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인 의로운 남자와 여자, 즉 선한 남자와 여자들은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된다.

### 우리가 가진 모두를 그분께 바침

아내와 내가 그녀의 무능함과 해낼 수 없다는 느낌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꼭 두 달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것을 자전거의 비유라고 부른다.

어느 날 나는 귀가해서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일곱 살인 딸 사라가 들어와서 “아빠, 저도 자전거를 가질 수 있어요? 전 이 근처에서 자전거를 갖지 못한 유일한 아이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사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사라, 물론 가질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벌며 보려고 했다.

사라는 “어떻게요? 언제요?”라고 물었다.

“네가 푼돈을 모두 저축하면 아주 빨리 자전거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생기게 되지.”라고 내가 말해 주자 사라는 나갔다.

두 주 후에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사라가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라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나는 “짚랑, 짚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사라, 뭐하고 있지?”라고 물었다.

사라는 내게 와서 깨끗한 작은 병 하나를 보여 주었는데 그 입구에는 돈을 넣는 구멍이 있었고 바닥에는 동전이 한 움큼 들어가 있었다. 사라는 나를 보면서 “아빠는 제가 동전을 모두 저축하면 곧 자전거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우리 모두는 해의 왕국에 가기를 몹시 원한다. 그러나 자전거를 원했던 나의 딸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갖게 될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전 매일 한 푼씩 저금해 왔어요.”라고 말했다.

내 마음속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사라는 내 가르침에 따를려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라가 자신의 푼돈을 모두 모으면 결국 자전거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쯤에는 아마도 차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딸은 결국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내로 가서 자전거를 골라 보자꾸나.”라고 말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드에 있는 모든 가게를 다 가 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즉 이상적인 자전거를 찾았다. 사라는 그 자전거 위에 올라탔으며

감격하였다. 그러나 그 자전거의 가격을 알았을 때 사라는 얼굴에 낙담한 빛을 띠고 울기 시작했다. 사라는 “아빠, 전 절대로 자전거를 살 만한 돈은 갖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라, 네게 얼마가 있지?”라고 물어보았다.

사라는 “61센트예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네가 가진 돈을 모두 내게 주고 또 아빠를 끌어안고 키스해 주면 나머지 돈은 아빠가 내줄게.”라고 말하였다. 사라는 나를 끌어안고 키스해 주었으며 61센트도 주었다. 나는 자전거 값을 치렀다. 그런 후 나는 사라가 자전거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아주 천천히 차를 몰고 와야만 했다. 사라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리고 나는 사라와 나란히 차를 몰고 오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비유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는 자전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몹시 원한다. 우리는 해의 왕국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합당치 못하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아내인 자넷트가 도달한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좋아, 너 혼자서는 안되겠지. 네가 가진 것 모두를 내게 주면 나머지는 내가 지불하마. 나를 끌어안고 키스해 주면, 즉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마.”라고 제의하신 복음 성약의 감미로움을 맛보게 된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구세주는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영원을 향해 진보해 갈 것이며 마침내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단지 그분과 성약을 맺은 관계인 동반자 관계로서만 완전한 것이다. 그분의 완전함을 통하여서만 해의 왕국에 갈 자격을 얻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넷트와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토론하였으며 마침내 아내는 이해하였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난 언제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왔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항상 믿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나 자신에게서, 또한 나의 죄와 약점과 무능함과 재능의 부족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니파이서 2:8)다고 한 니파이의 말을 잊고 있는가!

다른 길이란 없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멀리하며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해내면, 내가 완전케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 관계는 경전에서 결혼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들 각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되면, 내가 합당하게 되면, 그러면 난 속죄에 합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난 그리스도를 내부로 받아들일게 될거야.”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병이 나오면 약을 먹어야지. 그땐 약을 먹기에 알맞을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속죄가 작용하도록 계획된 방법이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 하나는 “지극히 날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고 주의 구속 믿고 주의 일 힘써 하겠네”(찬송가, 112장 4절)이다. 내가 그 찬송가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성약 관계의 양면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일 힘써”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야 하며 그렇게 한 후에는 “주의 구속 믿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실 그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것을 복음의 마구를 걸친 상태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복음의 마구를 걸치면 목적지인 왕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이 우리 생의 목적지이듯이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그분과 거룩한 성약 관계를 맺고 우리가 가진 모두를 그분께 바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신다. 61센티이든 일 달러든 반 달러든 또는 2센티이든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것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쉬운 명에이며 가벼운 짐인 것이다. \*

스티븐 이 로빈슨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과 과장이다.



#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라



#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함

**과** 테말라 나왈라 마을에서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공과를 주의깊게 듣고 있던 인디언 자매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매들은 그들의 모국어인 키체이어로 공과를 듣고 있었으며, 손으로 짠 장중한 자수 장식이 달린 치마와 상의로 된 전통적인 마야 복장을 입은 한 인디언 자매가 교사로서 공과를 가르치며 스페인어를 키체이어로 통역을 하고 있었다.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특히 여성들에겐 더욱 그러한 지역인 이곳에서 이 교사는 독학과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 읽는 법을 배웠으며 또한 다른 자매에게도 이를 가르쳐 왔다. 이 자매가 기울인 개인적인 연구로 인해 배움의 열기가 상호부조회에 가득 차게 되었으며, 나왈라의 자매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게 되었다. (니파이이서 31:20 참조)

은 세상에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구세주께서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교성 88:77)라고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함께 나누고 있다.

배우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학문을 추구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이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된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의 아내인 카밀라 킴블 자매는 지속적인 배움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로리 멘더슨 그림

70세가 넘어서도 매년 대학교에 등록을 하여 한두 가지 강의를 들곤 하였다. 킴블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배운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경험에 대하여 마음을 계속 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분은 적당한 때에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열린 마음과 주의깊은 눈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역을 이해하려는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더욱 좋아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 말씀을 나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빛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갖추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지니게 된다. ... 자립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 “독해력과 작문과 기본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경전 및 기타 훌륭한 책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6쪽 참조)

세상의 많은 곳에서 여성들은 읽고 쓰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문경 기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 귀중한 보화를 받는 일을 실현시켜 준다.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 신앙의 험난한 여행

로렌스 에이치 카임

물문경은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을 이끌어 주는 쇠막대가 되어 왔다.

**침**례받기 전에 물문경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나는 그곳의 몇 부분에 대해 고심했었다. 거의 매일 나는 말일성도 동료였던 프랭크와 앉아서 잠시 동안 복음에 관해 토론했다. 나는 물문경에 관해 곤란한 질문들을 프랭크에게 던졌으며, 그는 항상 그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었다. 물문경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이 책에 대해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타는 듯한 간증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책이 진리를 담고 있음을 느꼈다. 비록 내가 이 책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문서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물문경이 영감받은 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교회와 그 회원들을 바라볼 때마다 일상 생활에서 복음의 적용과 영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물문이즘이 신약 전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의 발현이라고 느꼈다. 따라서 나는 지상에서 진정한 기독교인다운 삶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주는 교회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었다.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 나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나는 어둠에 싸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정신을 집중하여 내가 찾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받은 응답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었다.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성경을 집어 들고 이를 뒤적일 때, “그래, 너는 침례받아야 해!”라는 내 영혼에게 주는 확실한 인도를 느꼈다. 나는 너무 기뻐 흐느껴 울었다.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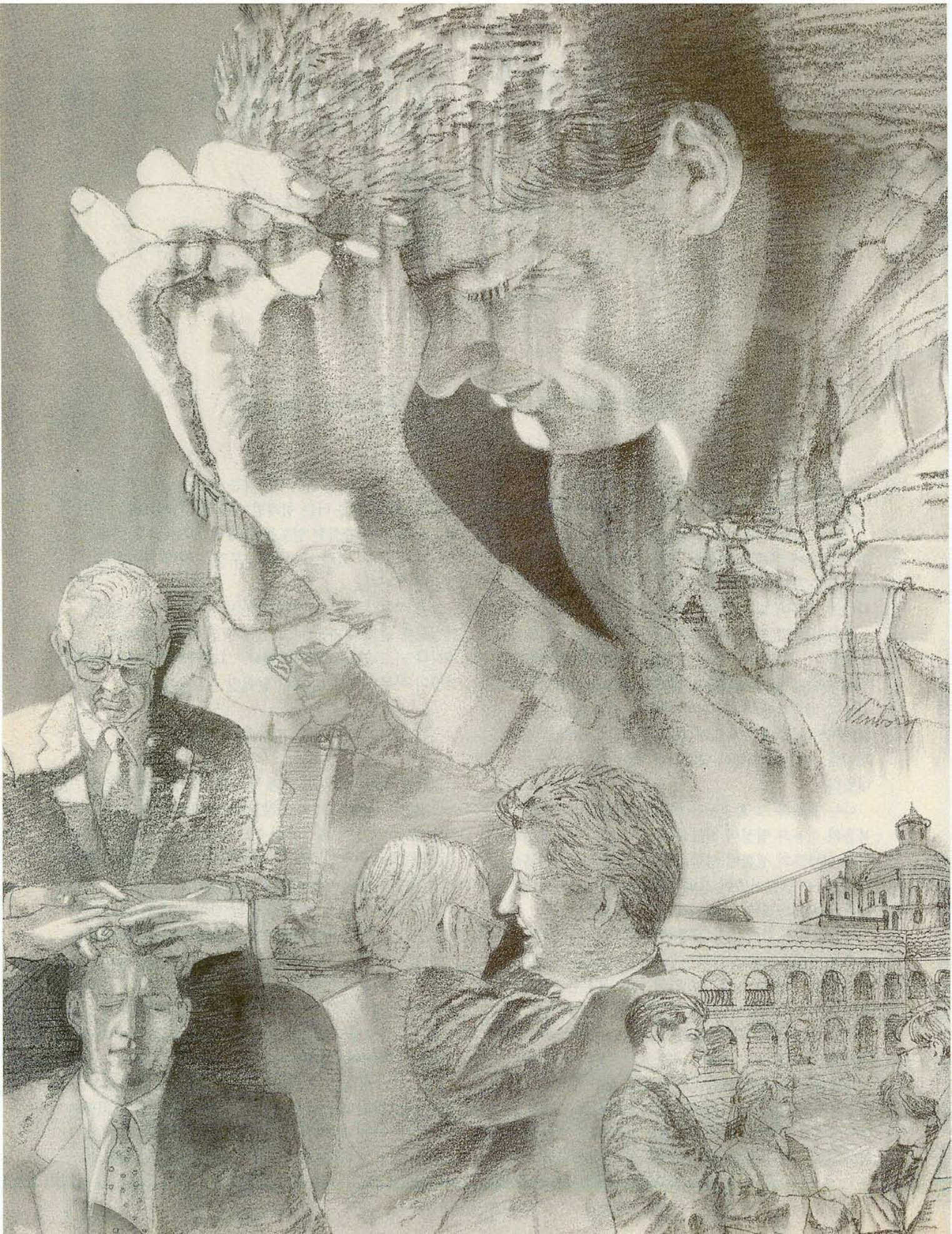
그때 이후로 나는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이 물문경의 진실성에 관해 내가 지니고 있는 확신과 같은 비율로 자라나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내가 지닌 간증의 성장이 아무런 고뇌도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함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대단히 실망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내가 내린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나는 반물문 자료를 우연히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사감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카세트 테이프를 몇 개 건네 주었으며, 그분들은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 테이프를 들으니 나 역시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다.

비록 이 부정적인 내용의 일부는 정말 그럴 듯하게 들렸지만, 나의 최종적인 반응은 그것은 옳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과거에 교회의 진실함을 부인하기 위해 교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너무도 여러 번 영을 느꼈었기



때문에 반몰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경전, 특히 몰몬경을 펼쳐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했다. 학식이 많은 교회 회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이후에 나는 이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이었음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부모님들을 위해 카세트 테이프를 손수 제작하여 반몰몬 자료에 있는 주요 비난에 응수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 테이프를 틀어 주었으며, 이를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시면서 “애야! 아주 훌륭한 설교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이 경험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 “난 첫눈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단다.”

내가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 날, 나의 새로운 부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나에게 대한 꿈을 꾸 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꿈에서 내가 교회에서 새로운 중요한 직책을 받았으며, 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방 안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치 나를 성별하는 것처럼 손을 내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았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이후에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새로운 부름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으며 성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아마도 나이가 드신 분에 의해 성별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본다면 난 첫눈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단다.”라고 말했다. 때 나는 온몸이 떨리는 듯하였다.

나는 부모님에게 모임에 참석하시도록 권유했었다. 에스 디워스 영 장로가 나를 성별한 후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맞아.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저분이야!”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모님에게 나의 간증을 전했으며 그분들이 나에게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렸다. 처음으로 아버지는 나에게 교회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어머니는 기쁨으로 인해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을 느꼈다.

### 커져가는 간증

간증이 부쩍 커갈 즈음, 아내詹과 나는 에쿠아도르 쿠이토 선교부에서 지도력을 훈련시키는 복음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우리가 지낸 시간들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주었으며 나는 이곳에서 몰몬경을 다시 읽었다. 읽어나가는 동안 내 페이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 책의 진실성이나 역사적인 정확성에 관한 의심없이 그대로 나의 마음에 흘러들어 왔다. 나는 이 책이 참됨을 알았으며 나의 주된 관심은 이 책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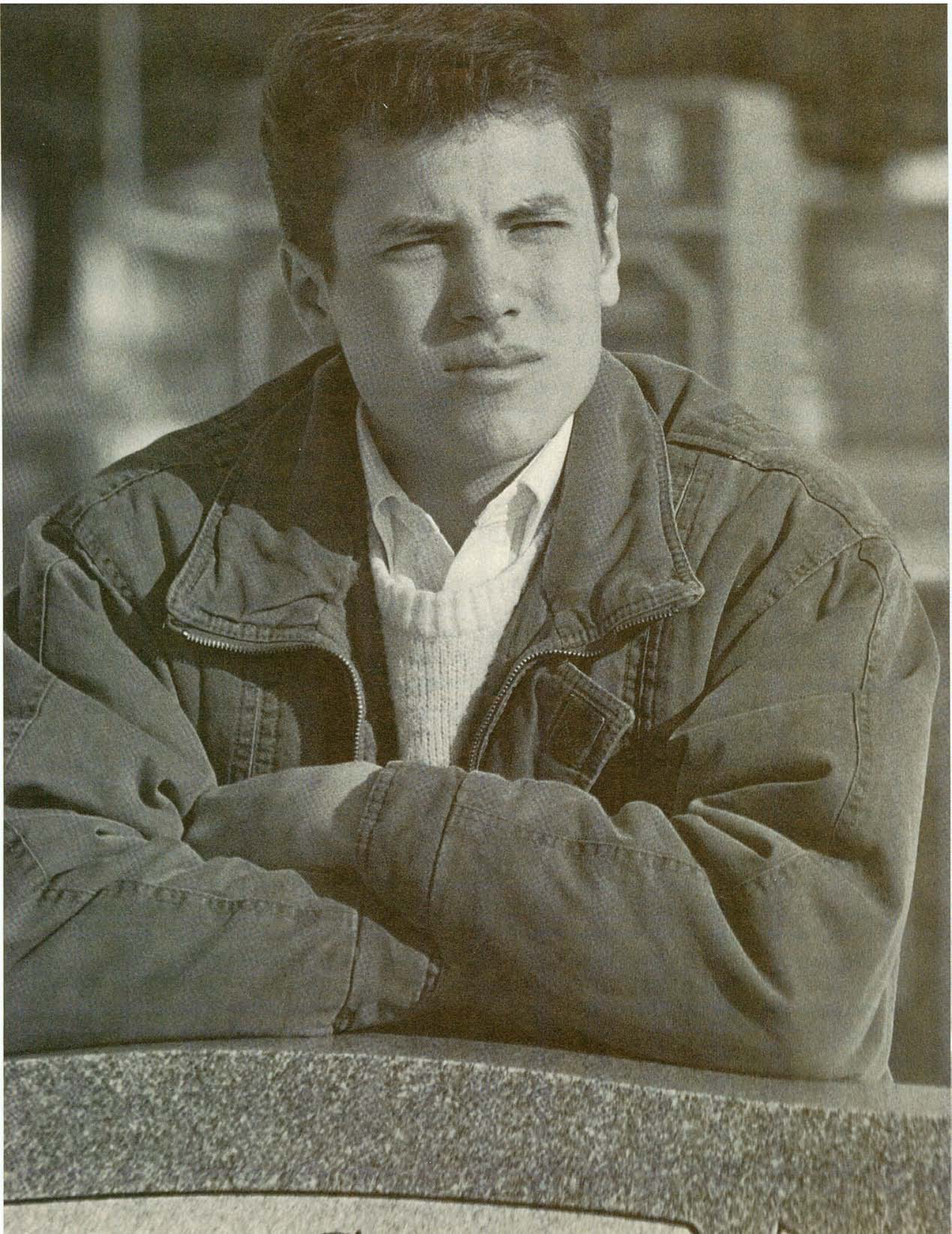
선교 사업 동안 에쿠아도르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몰몬경에 대한 나의 간증은 다시 커졌다. 나는 에쿠아도르, 오타발로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대단히 영감받은 간증을 듣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고대 잉카인들의 직계 후손들이었으며,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대대로 전승된 이들의 구전된 역사는 몰몬경의 이야기와 너무도 흡사하여 오타발로 출신의 인디안들은 몰몬경이 자신들의 책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선교사의 부름에서 해임된 후, 우리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권고에 따라 몰몬경을 다시 읽기로 결심하였다. 이번에 다시 읽는 동안 나는 에쿠아도르의 성도들과 나누었던 경험과 이들의 간증을 생각하였다. 나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하고 상고하며 밑줄 긋고 또 다른 경전들과 서로 대조하며 참조했다.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나는 몰몬경이 참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 20년 후

내가 침례를 받은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나는 그 이후로 몰몬경을 적어도 열 번을 읽었다. 이 특별한 책을 주의깊게 읽을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나의 부모님은 몰몬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 우리는 서로가 자신의 종교에 헌신하는 것을 상호 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경전을 읽고 복음 원리에 대해 토론도 하며 가족 예배도 갖는다. 때때로 이러한 토론에 몰몬경에 있는 성구가 포함되기도 한다. 나의 간증이 강하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몰몬경에 대한 공부와 조화를 이루며 더욱 커져갈 것임을 알고 있다.\*

로렌스 에이치 카임은 에리조나 메사 스테이크, 메사 11와드의 워드 선교 책임자이다.



## 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난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저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위안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일부러 저를 떠나시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장막 저편에서 어머니를 필요로 하셨다고 말할 때 저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저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어머니를 필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들의 대답

**대** 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커다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실감이 인생에서 일찍 올 때는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매님이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견디기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슬픈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과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겪는 첫번째 단계는 대체로 충격과, “안돼! 내 어머니는 안돼! 돌아가셔서선 안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순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따르는데 이는 고통과 비탄을 겪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질문으로 생각해 볼 때 자매님은 아마도 슬픔의 과정중 이 단계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타협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다시 오시게 할 수 있다면 항상 도와드리고 다정하게 사랑으로 대해 드릴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이라는 단계가 옵니다. 복음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야. 죽음은 인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복음은 어머니가 여전히 가까이 계시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매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위 과정에서 자매님이 처해 있는 단계는 자매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매님도 수용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것이며, 결국 자매님은 보혜사 또는 성신으로부터 나오는 위안, 즉 평온하고 달콤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사람이 항상 “이곳보다는 장막 저편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그분의 저서 기적을 낳는 신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겪도록 하셨습니까? 선교사의 죽음이 시기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께서 얼마만큼의 일을 일어나게 하며 또한 얼마만큼의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2년, 96쪽)

이제, 무엇이 자매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매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즉 친구나 아버지, 조부모님, 감독님 등과 자매님의 느낌을 나누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권 축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다른 위임받은 신권

지도자에게 그들의 손을 자매님의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님을 위해 갖고 계신 위안의 메시지나 말씀을 전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매님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훌륭한 일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성약 121편 1~10절과 마태복음 5장~7장에 있는 산상 수훈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십시오. 활동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이 이 슬픔의 기간 동안 자매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자매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언젠가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간증이 커짐에 따라, 그러한 확신이 점차 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매님의 속마음을 그분께 털어놓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무거운 짐을 지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누르고 있는 이 짐에 지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 청소년들의 대답

저는 것처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열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으나,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위안이 아닌 고통과 분노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런 상심의 와중에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잘 이해하고 평안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아버지께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와 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자매님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벤티 하이젤트, 16세  
포웰, 오하이오

저는 그러한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 세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 것은 친한 친구를 사귀어 제가 느낀 것들과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내어 크게 우는 것도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천 번 그렇게 했으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이버 커니, 12세

웨이크 포레스트, 노스 캐롤라이나

자매님이 원하는 평안을 얻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안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약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와 친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 마음을 털어 놓으려 하지 않고 속으로만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주위에 더 이상 없었기에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픈 과거들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으므로 내적인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의문이 날 때도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단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속마음을 가족에게 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자매님이 참으로 슬픔에 빠졌을 때 자매님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리 베스 벤틀리, 18세  
덴빌, 캘리포니아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기 전에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매우 큰 상실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시어 이 자매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분자 그대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매님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함께 나누십니다.

저는 자매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위안을 찾으시도록 제안해 드립니다. 만일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저의 어머니와 같으시면 저는 그분께서 자매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에 빠진 사람을 찾아 도와 줄 것을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해리스, 17세  
손튼, 콜로라도

제가 열다섯 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느낌,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분노, 좌절, 고독감, 충격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느낌은 정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의 가족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의 가족이 자매님의 느낌과 상실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어머니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매님의 어머니는 어딘가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만일 자매님의 가족이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 자매님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님의 말을 들어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상담자, 또는 친구를 찾는 일을 도와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들은(비록 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복음과 기도,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화가 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분은 그것을 기대하셨고 제가 그런 감정들을 털어버리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저를 감싸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 자신과 슬픔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매님이 진실로 평안을 바라다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자매님이 평안을 얻게 되면 따스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매님이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스테파티 랜섬, 35세  
웨스트밸리시티, 유타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 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2년 6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W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국어로 써 주셔도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경우에는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저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 문제입니다. 저는 제때에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세우고도 달성하지 못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때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영혼으로 부른 노래”

제이 엠 토드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중부 유럽 및 러시아 순회 공연 여행은 참으로 자유의 기쁨과 영이 충만한 여정이었다.

**소**련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인 1991년 6월에 3주 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여행에 대해, 합창단원들이 전하는 놀라운 경험담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 합창단이 다섯 번의 앙콜곡을 포함하여 많은 성가곡을 부르며 열연했던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앞에는 “레닌—첫번째 혁명! 태버나클 합창단—두번째 혁명!”하며 사람들에게 찬탄의 소리를 연발하던 한 노인이 있었다.

•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공연을 끝내고 공연장을 나오던 한 합창단원은 눈물을 흘리며,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26세의 여인과 마주쳤다.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며 묻는 단원에게 그녀는 “여러분은 제게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전해 주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아니 우리나라 말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 주시고 아침을 드실 때에만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공연에서는 어떤 남자가 공연을 끝낸 단원에게 느릿한 목소리로 “저는 서른 여덟살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타파해야 할 잘못된 철학 속에서 살아온 셈이지요.”라고 종교 압제 하에서 무신론을 종교로 삼아온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공연이 끝난 뒤 감정에 북받친 채 단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우리 부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노래로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 많은 합창단원들이 공연 때마다 경험하곤 하였던 것이지만 캐더린 미켈슨은 상트 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에서 한 경험을 이렇게 전하였다. “공연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청중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노래한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노래에 완전히 취해 있는 듯했습니다. 남은 공연 시간 내내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으며, 저는 그 여인에게 제 온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간증을 노래에 실어 보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앙콜 곡이 끝난 후 합창단이 청중에게 손을 흔들며 무대를 빠져 나올 때 그 여인과 캐더린은 인파 속을 헤치고 다가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합창단원들은 언어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능한 한 대화로써 의사 소통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눈물과 우정어린 오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 말로 “고맙습니다”라는 한 마디 말에다 그들의 느낌과 감정을 다 실어 전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다.

심금을 울리는 영으로 충만한 여행이었다는 표현 이외에 다른 어떠한 말로도 이 역사적인 22일 간의 유럽 순회 공연 여행을 평하는 것은 합창단의 선교 여행의 정수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행 중에 만났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또한 각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오페라관과 공연장에서 마주한 수만 명의 청중들에게, 나아가서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공연을 접한 수천 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표현 그대로 선교사였다.

합창단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등 8개국에 걸쳐 6,800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버스 및 비행기를 이용하여 여행하였다. 그들은 12회의 정기 공연과 1회의 약식 야외 공연 그리고 3회의 성찬식 특별 찬송과 4회의 구도자를 위한 노변의 밤 모임 등을 모두 합하면 전부 20회의 공연을 하였다. 평균 하루에 한 번 꼴로 공연을 한 셈이다.

이들 여러 국가와 도시 사이로 오늘날 주님의 영적 군대가 리듬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승리의 나팔 소리 널리 울려 퍼지네”하는 전승가를 저녁마다 외치며 행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음악적인 성과는(그에 수반되었던 영적, 정서적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뮤질페른 홀에서 열린 공연에서 합창단과 함께 청중들의 갈채를 받고 있는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 제럴드 오틀리**





합창단에게 부여된 네 가지 주요 사명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첫째,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이 순회 공연중이며, 자신들의 도시에서 공연할 계획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그 지방 언론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합창단에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 즉 단원들이 무보수 봉사자라는 점에서부터 명망있는 지휘자 제럴드 오틀리를 비롯한 오르간 반주자나 솔로 연주자에 관한 이야기 등을 취재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합창단이 속해 있는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도 지면이 할애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과거의 동구권 국가에서는 말일성도들의 신앙과 생활 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교회 공보 위원회 소속의 마이클 오터슨과 마이클 읍스트는 라디오와 TV 및 각종 인쇄 매체에서 쇄도한 인터뷰 신청을 받고 교회에 관련된 질문들에 수도 없이 대답해 주어야 했다.

• 바르샤바에서 겪은 취재는 특별하였다. 폴란드 국영 방송국 TV 기자들이 공항까지 나와 합창단을 맞이했으며, 단원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합창단 실무 책임자들과 인터뷰하였고, 이후에는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에까지 동승, 합창단원들과도 인터뷰를 하였다. 더욱이 바르샤바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나와 있는 수많은 신문, 라디오 관계자들에게 싸여 합창단원 및 실무자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뷰 요청을 받는 중에 가족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회의 신조들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 현재까지 교회 공보 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합창단의 도착에 앞서 유럽 내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을 통해 소개된 합창단 및 교회에 관한 기사만 해도 수백 가지이며, 합창단이 다녀간 뒤에 나온 기사들을 모으는 데는 앞으로도 수 개월, 많게는 일 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점은 공연 그 자체에 있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세 번 이하의 앙콜로는 결코 끝난 적이 없으며 공연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되는 음악을 통한 영적인 잔치였다. 순회 공연 기간을 통틀어 공연이 있던 저녁마다 그들은 평균 다섯 번 이상의 앙콜을 받았다. 때로는 청중들이 열광하여 일어서서 박자에 맞추어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휘파람을 불어대거나, 브라보, 브라보 소리를 연발하기도 하였으며, 공연이 끝나면 무대 위에서 마지막 단원이 빠져 나갈 때까지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박수 갈채를 보냈다.

• 다음은 합창단원인 디안 자보크의 말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연을 막 끝내고 필하모닉 홀을 빠져 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는 오랫동안 꼭 쥘 채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과는 함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죠.”

• 모스크바 공연을 막 끝내고 나올 때, 자신이 핵 과학자라고 소개한 어떤 남자가 합창단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한 여러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제 친구는 시베리아에서 왔는데, 선교사들이 언제쯤 시베리아에 오는지 알고 싶어 하는군요.”

• 모스크바에서는 합창단원들이 저녁 공연에 버스 안내양을 한 사람 초대하였는데, 그녀는 공연 내내 서 있는 것이었다. “너무 흥분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기쁨과 영적인 체험은 난생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주안점—언론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와 공연 그 자체—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안점은 보다 소수의 특정 그룹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교회가 이번 순회 공연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하였던 대상은 여섯번의 리셉션과 다섯번의 만찬석상에서 만났던 정부 요인 및 시 주요 인사, 각국 영사관 및 대사관 관리를 비롯한 교육계, 과학계, 예술계 및 재계 인사와 다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 교회 측에서는 합창단원 중의 일부와 지역 교회 지도자로서는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방부장, 또는 지역 사정에 따라 지부장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공연을 통해 얻어진 선린 관계를 증진시키고 교회 지도자와 정부 및 사회 각계 인사들 간의

왼쪽 : 연주회 사상 최다  
청중인 8,400여명이 모인  
스위스 쥐리히의 할렌  
스타디온 무대 위에서  
열연하는 합창단

오른쪽 : 그 전날 저녁,  
합창단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음향  
시설이 훌륭한 팔라 드  
콩르에서 노래하였다.

보다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스위스 쥐리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예전에는 동독의 도시였던 드레스덴과 베를린 등 교회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회원들도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모두 리셉션이 열렸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폴란드 바르샤바와 소련의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교회가 아직 생소하고, 회원도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는 만찬이 열렸다.

지역의 말일성도 사업가 및 사회 인사들이 이러한 만찬을 주관하고, 모든 경비를 충당하였는데, 이들이 커다란 경비를 들여 만찬을 준비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와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두고 있는지를 정부 및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초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특별히 워싱턴 디 시에 거주하는 교회 공보 위원회 국제 관계 부장인 비벌리 캠벨이 계획한 것인데 선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모든 만찬을 초대받은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훌륭하게 접대하도록 하여 추억에 남을 만찬이 되도록 준비하였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며졌다.

• 부다페스트 공연에 이은 만찬에서 헝가리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진리인 자유야말로 세상이 모두 갈망하고 있는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창단이 발하는 화합의 화음은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니 파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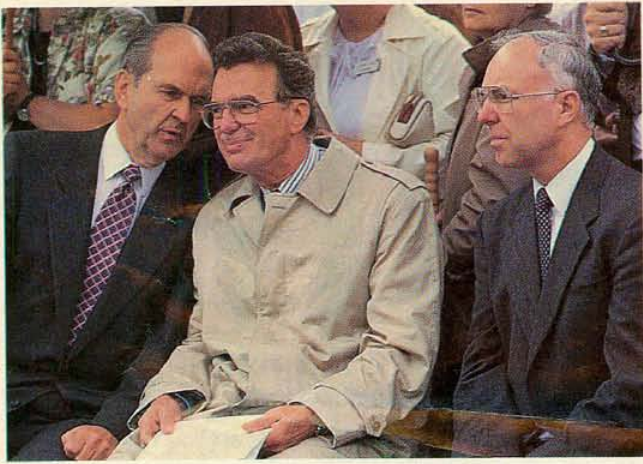
• 모스크바 공연 후 열린 만찬 석상에서 소련 문화부 차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역시 여러분 물론들과 같이 금연이나 금주 문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자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해 주었고, 우리 역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우리가 공통의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안점은 노변의 모임(평균 800명 참석)과 합창단이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한 영적인 시간으로서 각각 4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교회에 대해 더 알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환영받았다. 이 모임에서 교회 지역 성도 및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교회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잘 요약해 주었다. 그런 다음 함께 여행을 하던 총관리 직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현재까지 유럽 지역의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합창단과 동행하였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당시 유럽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였던 한스 비링거 장로,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또는 엘버트 출즈 이세 장로의 말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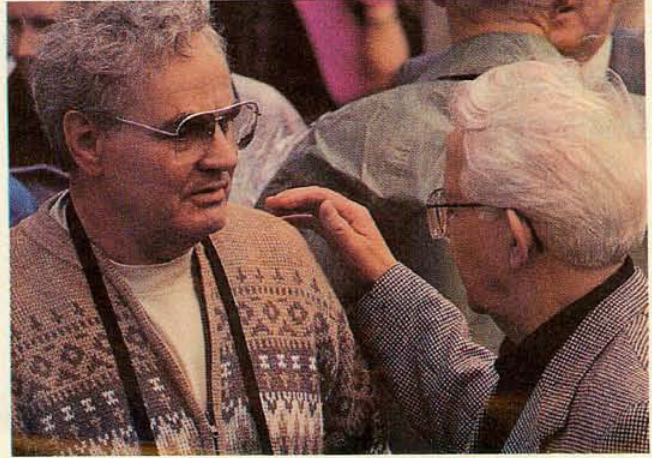
•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연 때의 일입니다.”하고 제임스 비 케나드는 말을 잇는다. “청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그분을 만나 다음날 저녁에 있을 노변의 모임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데리고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저와 제 아내를 자신의 아파트에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복음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기꺼이 물론경을 읽겠다고 하였으며, 선교사들의 방문도 허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질 무렵에 제 아내와 그분의 아내는 서로 포옹하며 작별을 아쉬워하였습니다.”

• “나타샤를 만난 것은 모스크바에서 가진 성찬식에서였어요.”하고 합창단원인 루스 카는 말한다. “그 자매님은 개종한 지 6주가 된 일곱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당신을 안다.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라는 강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매님에게 월요일에 있을 공연에 꼭 참석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마지막 앙콜곡으로 부르고 있는 동안 그 자매님은 노래에 깊이 심취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당신을 찾게 되다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군요. 하마터면 못만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날은



왼쪽 상단: 독일 프리드리히도르프에서 합창단에 대한 환영이 있는 직후, 거트 슈미트 시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시 유럽 지역 회장단 보좌로 있던 칠십인 정원회의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그 우측에 서 있다. 현재 그는 유럽 지중해 지역 회장이다.



우측 상단: 합창단원들이 공연에 참석한 수많은 청중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단: 비가 개이고, 합창단 지휘자인 제럴드 오들리가

프리드리히도르프에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안마당에서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다.



여행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갖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나타샤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서툰 영어로 적힌 쪽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저 잠 안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일 영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사전을 들춰 가며 이야기해야 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어질 무렵 그녀는 ‘당신은 제 첫번째 친구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자매님의 수많은 친구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매님은 많은 친구를 얻게 되실 거예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991년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 순회 공연 여행에서 강조한 위의 네 가지 사항, 즉 사전 홍보, 공연, 리셉션과 만찬, 노변의 모임과 성찬식은 방문한 지역 어디에서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해시키고, 대중적인 지지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주님이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넬슨 장로는, “저는 역사적인 정치적 대변력과 장벽이 허물어지기 훨씬 이전에 태버내클 합창단의 이 지역 공연을 타진해 보기로 결정한 교회 대관장단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결정이 대관장단이 가지고 계시는 예언의 권능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순회 공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 전에 알려 주었던 것은 그에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부름이기도 했다. 따라서 합창단은 음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언어면에 있어서도 착실하게 준비하였다. 열두 번의 공연 중에 반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도시인 프랑크푸르트, 쾰리히, 비엔나, 드레즈덴, 베를린(2번 공연)에서 공연되었으며, 불어권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헝가리어권인 부다페스트, 체코어권인 프라하, 폴란드어권인 바르샤바에서 각기 한 번씩의 공연이 개최되었고, 러시아어권인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모두 2회의 공연이 있었다. 각 나라의 국적과 사용 언어에 맞추어 합창단은 그 나라 국가와 그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속 노래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습득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의 노래를 히브리어로 불렀다. 또한 작년은

모짜르트 서거 200주년인 되는 해였으므로 합창단은 종종 모짜르트의 곡 중에서 골라 라틴어로 부르기도 하였다. 물론 합창단은 영어로 된 노래도 불렀다. 종합하면 결국 합창단이 8개 국어로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뜻이다. 합창단은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앞둔 수 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야 했으며, “개인적으로 평생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암기하고, 발음을 익혀야 했습니다.” 라고 한 단원은 말하였다.

그러한 연습 다음에는 영적인 준비가 뒤따랐다. 수잔 크리스찬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합창단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공연 여행도 많이 다녀본 편이지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단원들은 모두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다른 단원들과 더불어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였으며, 금식도 했습니다. 저는 또한 저의 준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당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마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하고 수잔 테이트는 말을 잇는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알 것입니다—‘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사는 1억의 인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나팔’을 사용하여 외칠 수 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겠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은 물론 공연이 끝난 뒤 청중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합창단원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다. 케네쓰 윌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태버내클 합창단 선교사로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단원들이 각자 여행 중에 수십 개의

프라하의 스메타나홀은 무대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텔레비전 카메라맨들이 국영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합창단의 열연 장면을 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게리스, 캐티 파커, 피아노의 엘리자베드 발렌타인 엘리오투와 협연하여 독일 드레즈덴 공연에서 독창을 하고 있는 조안 사우드 오틀리

합창단 음악 테이프와 백여개의 신앙개조 카드 그리고 그들이 여행하는 나라에 있는 선교부 주소와 전화 번호를 적은 구도자 소개 카드를 수백개씩 가지고 다닌 것으로도 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복음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합창단원들도 테이프와 카드 값을 자비를 들여 마련하였으며, 더 큰 선물은 합창단원들 각자가 여행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인 그들 자신이었다. 합창단의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하였던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324명 중에 유럽 여행에 오른 313명 만으로도 합창단은 이미 두 개의 선교부의 평균 복음 선교사 수를 넘어서는 인원이었다. 313명의 선교사들과 32명의 행정 담당자들(자비를 들여 합창단과 동행하고 있는 단원들의 배우자들을 포함시킨다면 선교사 수는 500명이 넘는다.)이 공연을 하는 도시나 청중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경험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임은 불을 본듯이 자명해진다.

## 얼 굴

“순회 공연 여행을 떠나기 두 달 전쯤, 저는 여행을 하는 동안 한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얼굴을 찾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으나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그가 체코슬로바키아인이었다는 생각만 다소 들 뿐이었습니다. 공연 때마다 저는 그 얼굴을 찾아 보았습니다. 프라하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손에 꼭 쥐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가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흥분된 마음으로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공연 동안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합창단 테이프를 드릴까요?’라고 하면서 그것을 건네 주자 그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교사 카드에 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동안 그는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공연이 끝난 후, 한 합창단원은 스메타나홀 밖으로 나가다가 십대의 자녀를 데리고 온 한 부부를 보고 다가가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언어 문제로 인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였다. 바로 그 때에 한 청년이 나타나 통역을 해주었다. 청년은 그 부부가 자신의 부모이며 그는 미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교회를 알게 되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청년의 부모는 그가 내린 결정에 심하게 반대해 왔으며 오늘 저녁 이 공연에도 자기가 거의 강제로 모시고 오다시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공연 동안에 벌어진 일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모님께 불이 붙었어요.” “우리는 몇 분 동안 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청년의 부모들에게로 돌아서며 영어를 하는 아들에게 ‘부모님께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교회에 가입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복음이 참되다고 말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끌어안고 제 볼에다 입을 맞추었으며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사도이십니까?”

살린 반박그년 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바르샤바에 먼 친척이 있어서 합창단이 간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친척의 사진을 손에 들고 사방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우리는 현대의 계시와 복음의 회복, 지체의 말씀 등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간 중간에, 그의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에 관해 토론하고 있을 때, 그는 저에게 사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는 아니라고 답한 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데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군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만을 말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무엇이고 또 왜 느끼는지 알고 싶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신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말을 마친 후 선교사를 만나 더 배워 보지 않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은 ‘예’였습니다.”

### “저는 조명사입니다.”

케이 린 웨이크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연 후, 저는 수염이 성성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연주회가 즐거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과연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신앙개조 카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를 돌아보며 서툰 영어로 ‘저는 조명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연주회를 위한 조명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하자 그는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말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해 주고 나서 그가 조명을 밝혀 주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묻자 그는 그가 영어를 하지 못하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더 ‘저는 그냥 조명사일 따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저의 간증을 전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어를 못하는 그의 친구에게도 이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친구에게 되풀이해 전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만이 어떤 큰 풍선 속에 파묻혀 주위에 있는 군중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부터 몰몬경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종교를 공부하는 중이라던 그 사람은 크게 감동을 받은 듯했으며, 꼭 몰몬경을 구해 읽어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요셉 스미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할 때”

“볼쇼이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라고 안 할버슨은 말을 꺼낸다. “누군가 제 팔을 건드리는 것 같더니, 한 여인이 제 옆으로 와서 ‘몰몬에 대해서 좀 더 알려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십니까?’하고 묻자 그 여인은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인이십니까?’라고 물으니 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몰몬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그 몰몬경이 어떻게 하여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영을 아주 강하게 느껴 말을 미처 꺼내지도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이 아주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던 자매 역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지금 느껴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성신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 그 자매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다 가기 전에 저는 그 자매님에게 선교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 “책을 제게 주세요.”

다음은 윌마 에스 립시의 말이다. “저는 여행 기간 내내 러시아어로 된 몰몬경을 지니고 다녔지만 여행이 끝나는 날인 토요일까지도 그 책을 아무에게도 전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더 일찌감치 책을 전해 주지 못했는지 의아해 하면서 숙소인 페테르부르크 호텔의 식당으로



좌측 상단: 독일 베를린  
샤우스필하우스에서 갈채를  
받고 있는 합창단  
우측 상단: 베를린 공연중



무대 발코니에서 연주하는  
오르간 반주자와 합창단원들  
하단: 합창단원들이

연주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그들에게  
번역된 신앙개조 카드를  
나눠 주고 있다. 단원들은

또한 교회에 관하여 좀더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  
구도자 카드를 작성하였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러시아어 가이드 중 한 사람인 미모의 젊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갈 준비를 다 갖추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제 몰몬경을 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에게 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예요. 이 책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저는 이 책을 전해 줄 합당한 사람을 찾아 동유럽 전역을 여행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더 자신이 책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책을 읽을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저는 러시아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책을 제게 주세요.’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책을 읽고 싶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녀에게 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번째 증거이듯이 몰몬경은 그 두번째 증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몰몬경 안에 들어 있는 약속에 대해 말하면서, 만일 그녀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기도하여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꼭 선교사를 만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교사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네 주었습니다. 서로 포옹하는 저희들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책이 정말 갖고 싶어요. 꼭 읽어 볼게요. 약속 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모든 이야기들

톰 로저슨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의 조직에 소속된 몸으로서 또 다시 이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창단이 이번처럼 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 온 생애에 있어서 이번

공연은 가장 영적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흥이 나고, 혼을 빼놓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동구 및 러시아 지역에서 공연하는 동안 공연 중간 중간에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짓는 청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청중이건 합창단이건 할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마시 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합창단원에게 이번 여행은 무척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으며, 그로 인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치게 되면, 곧 이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반 나절 이상을 여행하고 그날 밤 두 시간에 걸친 공연을 갖어야 하며, 그런 다음 다섯 시간 아니면 많아야 여섯 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기상해야 하는 데다가 종종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새 호텔로 옮겨 가야 하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게 될 모든 음식에까지도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오직 헌신적인 말일성도 집단만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밤을 새워서라도 노래할 수 있을 것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분에 대한 간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합창단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공연이 있던 매일 밤 두 시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간증을 전해 주었으며, 청중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정말 모두 주었습니다. \*



## “주님께서 이 여행을 원하십니다.”

1991년 4월 29일, 물론 테버내클 합창단 단장인 웬델 엠 스무트가 그의 사무실에서 오는 6월 8일 시작될 테버내클 합창단의 중부 유럽 및 러시아 순회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행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여행이 성공리에 치리질 것이라는 데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여느 연주 여행에서처럼 공연에 앞서 일찌감치 목적지까지 타고 갈 비행기와 공연하게 될 공연장, 510명의 사람이 짐을 풀고 식사를 할 호텔 등에 대한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을 앞두고는 얼마간의 계약금을 걸어 두는 것이 상례인데, 일부 계약의 경우는 그 돈만 해도 제법 큰 액수입니다. 1991년 2월 7일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월 하순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라고



그는 반문하였다. “1월 16일에 대 이라크 공중전이 시작되었고, 예정된 지상전도 곧 임박해 있는 때였습니다. 유럽 전지역은 테러와 인질 납치에 대한 공포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전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정된 각종 행사와 계획도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으려 했던 유럽 관계자들은 우리 역시 계획을 취소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금요일에 저는 이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께 전화를 드려 만나뵙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대관장님은 ‘ 좋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대관장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린 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부대관장님, 계획을 취소하였을 경우 곧 이어 종전이 되면 교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노력해서 유명한 연주회장과

공연을 하기 위해 불쇼이 극장으로 가는 길에 합창단원들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 성당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다.

지원해 줄 프로모터들을 구해 놓고, 저희가 오히려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저희를 무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와 반대로 아무 생각없이 들어가서 단원들 전체의 생명과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까지 위협에 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부대관장님, 만일 대관장단이 만의 하나 이 여행을 취소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제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2월 7일에는 상당한 액수의 선금을 지불해야만 되거든요. 부대관장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난 뒤,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부대관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문제에 관하여 대관장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웬델,

당신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로 한 가지 결정 외에는 생각해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대관장님은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지요. 합창단은 올 여름 유럽에 갈 것입니다.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대관장님, 그 말씀을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저는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며 일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날이 2월 4일입니다. 비극적인 지상전은 2월 24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으나, 전쟁은 발발했는가 싶더니 2월 28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저희가 가려 하는 이 여행이 주님의 명에 의한 것이며, 주님께서 이 여행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길 원하시고 우리는 갈 것이며, 보호받을 것이며, 또한 성공리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주신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4월 29일, 태버나클 합창단이 출발하기 40일 전의 일이다. \*

## 여행 지역별로 본 교회의 성장

독일-회원 36,000명, 스테이크 16, 성전 2(프랑크푸르트와 프라이버그 소재) 위의 통계는 이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으로 불리던 지역을 포함한 것인데, 이 지역에는 대략 4,500명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회원 18,100명, 스테이크 5, 유럽의 불어권 지역인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에는 총 24,000명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다.

스위스-회원 6,500명, 스테이크 3, 성전 1(졸리코펜 소재)

헝가리-회원 400명, 지역 1

오스트리아-회원 3,500명,

스테이크 1

체코슬로바키아-회원 400명, 지역

1

폴란드-회원 200명, 지역 1

러시아-회원 300명(그중 100명이 서부 에스토니아 지역에 거주)

하단: 폴란드에 세워진 첫번째 말일성도 예배당인 바르샤바 와드 건물 기공식이 1989년 6월 15일에 있었다. 첫번째 폴란드 선교부는 1990년 7월

문을 열었고, 폴란드에서 나온 첫번째 선교사인 우슬라 아담스카는 미국의 워싱턴주 타코마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 주요 여행 일지

• 6월 10일, 월요일, 독일 프리드리히도르프, 프랑크푸르트 : 만일 태버내클 합창단원 중에, 앞으로의 상황이 염려되어 이번 여행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곳 프리드리히도르프 소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잔디밭에서 가진 첫 연주회에서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낮 12:30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20분간의 야외 “연주회”가 심한 소나기로 인해 몇 분간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백여 시민들이 운집하여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지휘자는 거트 슈미트 프리드리히도르프 시장과 러셀 엠 넬슨 사도와의 사이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소나기는 계속 내렸다. 이윽고 합창단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의 알렐루야라고 하는 송고한 단어 65개로 가사가 이루어진 노래 “알렐루야”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비가 그치는 것이었다. 몇 분이 더 지나더니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 내었고, 푸른 빛 하늘이 나타남과 동시에 햇빛이 내리쬐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신문은 “비를 그치게 한 알렐루야”라는 제목 하에 합창단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오늘밤 프랑크푸르트의 궁전식 극장 알트 오퍼에서 2,250명의 청중과 함께 시작한 개막 연주회는 네 번의 열띤 앙콜을 받는 대성공을 거둔 공연이었다.

• 6월 13일, 목요일, 스위스 쥐리히 : 화요일 저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소재의 음향 시설로 유명한 팔라드 콩르에서 2,000명의 열광적인 청중 앞에서 공연을 가진 뒤, 합창단은 오늘밤 할렌스타디온이라 하는 하키 경기나 마장 마술, 주요 음악 행사 등이 종종 개최되는 실내 스타디움에서 노래를 한다. 313명이 한 소리로 내는 음이 8,400명이 앉는 이 큰 공간에 똑같이 반향될 수가 없음에도 영의 아름다운 느낌은 온 실내에 가득 찼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청중들도 자리에서 미동조차 않고 듣고 있는 듯이 보였다. 오늘밤 이곳을 가득 메운 청중은 특별히 기억할만 한 바, 다른 지역에서의 공연들(런던 전문 여행사가 예약하고 각 도시 지역 프로모터에 의해

주선되는)과 달리 이번 공연은 교회 회원들이 자원하여 예약과 주선을 다 맡아 해주었다.

— 6월 14일, 금요일 아침 : 한 교회 회원이 지난 밤 공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합창단원 수 만큼의 사탕 봉지를 가져 왔다. 합창단원들은 서로 논의한 끝에 봉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것을 폴란드와 러시아로 가져가 그곳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 6월 15일, 토요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 오늘밤 1,400명의 청중과 함께 유서깊은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진 공연에서부터 이번 여행의 성격은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공산 치하였던 동구권에서 그 첫 공연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늘밤은 영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거의 모두 영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합창단원이 말했다. 이 날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만한 많은 날들의 시작이었다. 오늘밤 공연에서 3회로 예정되어 있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Music and the Spoken Word)” 실황 녹화 중의 첫 회분이 연주회의 일부로서 녹화되었다. 이번 실황 녹화가 전세계에 방영된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헝가리 국민들...

— 6월 16일, 일요일 : 안식일 성찬식에서 교회가 동구권 국가들과 러시아 공화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넬슨 사도님의 말씀이 합창단원들을 감동시켰다.

• 6월 17일, 월요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 오늘밤 브람스를 비롯한 많은 음악의 거장들의 “고향”인 비엔나 무직페른에서 두번째 “음악과 진리의 말씀” 실황이 녹화되었다. 참석한 많은 회원들을 포함하여 기쁨에 넘친 2,000명의 청중들은 여섯 번의 앙콜곡을 들은 뒤에도 여전히 공연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연을 중계하던 ORF SAT3 TV 책임자는 오늘밤 이 열렬한 갈채가 무직페른에서는 드문 일로서 자기 자신도 이제까지 두어 번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 6월 18일, 화요일,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 다시 한



**좌측 상단:**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오페라하우스에서 합창단과 가진 기자 회견. 합창단의 출현은 언제나 대단한 뉴스거리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합창단의 공연 실황을 수많은 가정으로 방영해 주었다. 러시아 공화국만 하여도 합창단과 그들의 간증을 실은 30분짜리 특별



방송을 1억의 시청자들에게 방송하였다. 우측 상단은 부다페스트의 의회 홀로서 공연이 끝난 후 담소를 나누기에 더없이 훌륭한 장소였다. 옆 페이지의

베를린에서 본 광고 포스터는 합창단의 공연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광모물 중의 하나다.

번 매우 영적인 경험을 겪은 곳이다. 이번 공연은 스메타나홀에서 1,30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합창단이 방문한 국가로서는 두번째 동구권 국가인 셈이다. 이날 저녁, 첫번째 앙콜곡으로 체코의 민속 노래인 “테세, 포라, 테세.”가 불려졌을 때, 그 순간은 합창단은 물론 청중들에게도 일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다. ‘갖기 어려운 자유에 관한 노래’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이 노래는 대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 독재자들에 의해 체코의 역사 기간 동안 줄곧 금지되어 왔던 노래이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 이후로 이 노래는 해금되었다. 그렇다 해도 합창단이 오늘밤 이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다소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철수하지 않은 소련군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중의 반응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합창단을 제외하고는 그 큰 홀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삼분의 일도 넘는 청중들이 일어선 채 어떤 이들은 하늘로 두 팔을 치켜 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음악과 그 가사를 음미하는 듯 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체코 TV 책임자는 스메타나홀에서 이렇듯 영화 같은 갈채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

주었다.

• 6월 19일, 수요일, 독일 드레즈덴 : 가는 도중에 합창단은 우회하여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에서 점심을 들었다. 헨리 부카르트 성전장은 합창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라이버그 시민들이 이곳을 ‘우리 성전’이라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쌍쌍의 젊은 남녀들을 자주 성전 뜰에서 뵙니다. 그들은 성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면에서 이 성전이 영원한 결혼과 사랑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영을 느낍니다.”

오늘밤의 공연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에 우리에게 동독(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알려진 땅에서 처음으로 갖는 공연이다. 쿨투팔라스트에 운집한 2,400명의 청중들은 이번 여행 이래 처음으로, 마지막 앙콜곡을 받은 뒤 맨 마지막 합창단원이 연단을 빠져 나가기까지의 5분 여 동안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박수를 보내는 성의를 보였다. 그 5분 여 동안 청중과 합창단원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 6월 20일, 목요일, 독일 베를린 : 육신이 지칠 대로 지친 합창단원들이 영과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에





Bruce W...  
 Linda Bangs  
 Hierarchien, Adressen, Vorverkauf  
 Telefon: 2 27 22 61 / 2 27 22 67

20.11.11 18.00 und 20.11.11 20.00 Uhr - Schauspielhaus Berlin  
 Nach dem Konzert: Kolloquium - Veranstaltung im alten Theaterkassen und in der Konzertsäle des Schauspielhauses  
 Berlin-Sanssouci 14.00-18.00 Uhr und eine Stunde vor Veranstaltungsbeginn - Telefon 227 21 23  
 im Landesbüro - Nordstraße 13 - Wilmersdorf 01 - Telefon 652 20 96 - Fax 652 02 22  
 Kartenerwerb per Post

# SALT LAKE TABERNACLE CHOIR

U S A

Öffentliche Vorlesung der  
 HANNOVER UNIVERSITÄT  
 in Zusammenarbeit mit der  
 USANA-Universitätsgruppe  
 für die Berliner Bevölkerung  
 in der

## Charité

...  
 ...  
 ...  
 ...  
 ...

우측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위한 자금은 합창단이  
 소재 필하모닉홀은 합창단의      노래를 취입함으로써 얻은  
 8개국 4,200마일의 연주      로열티와 공연비, 그 밖에  
 여행을 마감하는 마지막      현금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장소가 되었다. 이번 여행을

의지하여 예전에 공산권의 전방 전시장 역할을 하던 이곳 베를린에 재건된 사우스필하우스에서 낮과 밤으로 두 번의 공연을 하게 되었다. 오늘밤 참석한 1,500명이 넘는 청중들은 발을 구르며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이 저녁은 참석자들에게는 더더욱 기억할 만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전임 동독 선교부장직(1953~1957)을 역임하고 현재 합창단의 행정 보조일을 보고 있는 헤롤드 그레고리 형제가 연단에 나와 청중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바로 몇 분 전 독일 하원 의원인 분데스탁의 투표 결과 하원 사무실은 물론 수상 및 그 내각까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때문이었다. 그로 인한 환호성은 귀청을 찌를 정도였다.

• 6월 22일, 토요일, 폴란드, 바르샤바 : 또 한 번의 감동적이며 영적인 잔치.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왔다는 말이 믿을 수가 없다. 오후 3시 30분, 폴란드 땅의 첫번째 말일성도 예배당 헌납식이 바르샤바에서 있었다. 이 “종교적 행사”로 인하여 우리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6월 24일, 월요일, 러시아 모스크바 : 이날 저녁 불쇼이 극장의 공연에서 주 객석과 다섯 단으로 된 나선형 발코니 각단마다 가득 메운 2,400명의 청중 앞에서 세번째 “음악과 진리의 말씀” 실황 녹화가 있었다. 지난 동구권 국가에서 가진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벽찬 감동을 안겨 주었다. 희망과 주님의 영이 어디에도 매우 강하게 임재하여 있는 것 같았다.

첫번째 앙콜곡 “고스포디 포뮐루이”(“주여 우리에게 자비를”이라는 의미)는 위 말이 72번 계속 반복되는 찬송가인데 마치 이 밤에는 많은 사람에게 압제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던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국가적 대 참회의 기도 소리로 들렸다.

공연이 끝나고 가진 만찬석상에서, 러시아 공화국 부통령은, 소련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열 다섯 개 공화국 중에 가장 큰, 다시 말해서 소련 전 국토의 4분의 3에 달하는 영토와 약 1억 5천만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러시아 공화국이 한 달이 채 되기 전인 지난 5월 28일 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도 합창단의 공연 여행에 합류하였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한 공장 준공식에 존 엠 헌츠만 형제를 포함한 백 여명의 유대주민들과 함께 러시아에 왔는데, 이 공장은 앞으로 고품위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지난 1988년의 지진으로 인해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주택 건설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교회가 보여 준 봉사에 감사하는 뜻에서 소련 아르메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교회에 예레반 지역 내 한 구역의 필지를 희사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한스 비링거 장로가 이 회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 땅은 교회 집회소 및 사무실, 또한 주택 건축 기술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교회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거주지로 쓰일 교회 다목적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것이다.

• 6월 27일, 목요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 어떻게 하면 이처럼 감동적이며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고조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 오늘밤에는 여섯 번의 앙콜곡이 흐르며 박수 갈채를 보내는 청중들에게 주어졌다. 지난 번에 이어 두번째로 청중들은 마지막 남은 단원이 연단에서 내려와 퇴장할 때까지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작별의 아쉬움을 서로 나누었다.

“원더풀! 원더풀! 영적이요! 영적이야! 레닌그라드는 또다시 행복을 찾았오! 오늘이야말로 경축일이야!”하며 러시아 악센트가 강한 영어로 외쳐 대던 한 남자. 공연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새로 만난 러시아 친구들을 방문하고, 마지막 노변의 모임을 통해서 합창단의 음악과 러시아인 개종자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다. 넬슨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실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잘해 주었습니다.” \*

제이 엠 토드는 교회 엔사인 잡지의 수석 편집인이다.





**솔** 트레이크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원들은 지난 해에 유럽 중부와 러시아 지역에서 공연하면서 복음의 영을 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자매 처럼, 합창단원들은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해 주는 기회도 가졌다. (“영혼으로 부른 노래” 32쪽 참조)